

이달의 초점

2025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로 살펴본 여성 건강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 관점의 여성 생식건강 증진

| 박은자 |

월경·폐경 건강관리와 정책과제

| 박은자, 최지희 |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관련 경험과 인식

| 박은자, 문선영 |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2022년, 2025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전진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2022년, 2025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¹⁾

Contraceptive Practices in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National Survey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f Korean Women
across the Life Course, 2022 and 2025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항상 피임 실천율과 현대적 피임방법 실천율이 증가하였으며, 피임 결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임 빈도와 효과인 피임방법 활용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방법은 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초기 성인은 현대적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전통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반영구 시술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및 사용하는 피임방법을 통해 피임을 임신 예방으로 인식하는 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피임을 성매개 감염 예방과 성 건강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성·생식 건강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피임은 개인의 임신과 관련한 이슈뿐 아니라 성매개 질환 예방 등 성·생식 건강, 성적 자기결정권

과 같은 권리 등과도 폭넓게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보건 의제이자 여성 건강 및 성·생식 건강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박은자 외, 2025).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 피임은 단순히 임신을 피하는 행위

1) 이 글은 박은자, 전진아, 최지희, 문선영, 최승아. (2025).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2025ER060200)(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여성의 성·생식건강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성관계 및 피임 영역 원고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불필요한 임신 중단과 관련된 위험, 성매개 감염 예방 등 개인이 경험할 수도 있는 건강 위험을 줄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건강한 성행동 및 성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구로도 기능한다(Starrs et al., 2018).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피임 실천은 국내외에서 여성 건강 및 성·생식 건강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피임 실천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성·생식 건강 관련 핵심 지표(SDG 3.7.1)로 제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et al., 2022).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대적인 피임 도구 사용을 피임 실천으로 정의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임 실천은 전진아(2023)에서 보고하듯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피임 실천이 현대적인 피임 도구를 활용한 것인지, 피임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실태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포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조사 가운데 성관계 및 피임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는 2022년과 2025년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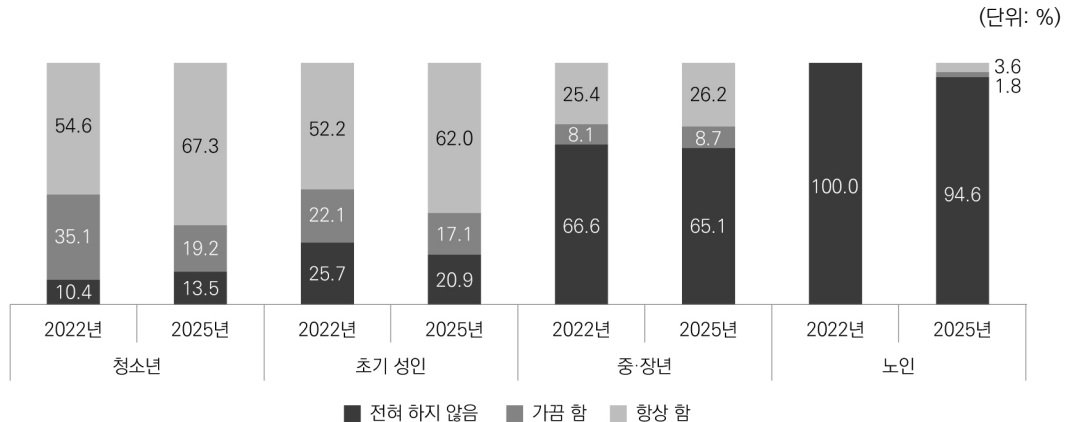
사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관계 시 얼마나 피임을 자주 실천하는지를 나타내는 피임 빈도, 어떤 종류의 피임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피임 방법, 월경주기법이나 질외사정과 같은 불확실한 방법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된 현대적 피임 실천, 피임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파악하는 피임 결정 주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글에서는 피임을 단순한 임신 조절 수단을 넘어 성·생식 건강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피임 실천 현황

가. 피임 빈도

2022년과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시 얼마나 자주 피임을 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 초기 성인, 중장년, 노인 모든 생애주기에서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7.3%, 19~39세 초기 성인의 62.0%, 중장년의 26.2%가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증가

[그림 1] 지난 1년간 피임 빈도

주: 청소년과 노인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출처: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전진아, 2023, 보건복지포럼 제321호, p. 30의 [그림 1]과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29의 <표 4-77>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음.

하면서 낮아지는 데 반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3.5%, 초기 성인의 20.9%, 중장년의 65.1%, 노인 94.6%가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에 따라 피임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을 달리 인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높고 원치 않은 임신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피임 실천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장년과 노인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피임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을 ‘항상’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²⁾ 청소년과 노인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나 청소년의 경우 ‘내가 혹은 배우자·파트너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 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76.5%)라는 응답이, 노인의 경우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불임), 환경(폐경) 등의 상태이므로)’(90.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초기 성인의 경우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42.1%), 내가 임신을 원해서(40.6%), 내가

2) 2025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피임을 항상 하지 않은 이유 응답 카테고리를 2022년과 달리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5년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표 1] 지난 1년간 피임을 항상 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청소년 ²⁾ (13~18세)	초기 성인 (19~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65세 이상)
내가 임신을 원해서	5.9	40.6	9.8	0.0
나의 건강에 좋지 않아서	5.9	12.6	12.9	4.9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불임) 완경(폐경) 등의 상태이므로)	5.9	3.1	63.4	90.1
내가 피임 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	29.4	36.5	23.8	8.0
내가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29.4	3.5	5.7	4.3
내가 혹은 배우자·파트너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 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76.5	26.4	11.8	2.5
배우자·파트너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35.3	25.2	15.3	6.2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52.9	42.1	37.2	0.0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47.1	13.8	16.1	4.9
기타	0.0	6.6	6.0	0.0

주: 1) 중복 응답으로 각 이유 %의 합은 100%가 아님.

2)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인데, 이 중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17명으로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노인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168명인데, 이 중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162명으로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출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29의 <표 4-78>을 발췌하였음.

피임 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36.5%)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은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63.4%),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37.2%)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앞의 결과와 연관지어 해석해 보면 중장년과 노인의 경우 피임을 성행동 과정에서 성매개 감염 등 건강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적 실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임신 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로 한정해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박은자 외, 2025).

나. 피임 방법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피임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 및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본인이 사용한 피임 방법과 배우자가 사용한 피임 방법을 구분하여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³⁾ 우선 가장 최근 및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본인이 사용한 피임 방법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피임 안 함'을 제외하고 청소년과 초기 성인에게서는 월경주기법, 경구피임

3)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지난 1년과 가장 최근의 피임 방법을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현재와 과거 패턴을 파악함과 더불어 지속성을 파악하고, 지난 1년간 발생 가능한 기억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최근의 경험을 조사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박은자 외, 2025).

약과 사후(응급)피임약을 본인이 사용했다고 응답 주기법, 자궁내장치, 경구피임약이라고 응답한 비
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중장년에게서는 월경 율이 높았다.

[표 2] 가장 최근 및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본인이 사용한 피임 방법(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청소년 (13~18세)		초기 성인 (19~39세)		중장년 (40~64세)	
	가장 최근	지난 1년	가장 최근	지난 1년	가장 최근	지난 1년
피임 안 함	51.9	40.4	46.2	40.7	52.7	47.9
폐미돔(여성용)	0.0	0.0	1.8	2.2	1.6	2.0
질내삽입기구(폐서리, 스펀지)	1.9	1.9	0.5	0.9	1.6	1.9
살정제(질좌제 형태의 약제)	3.8	3.9	0.1	0.1	0.6	1.0
경구피임약(성관계 이전)	19.2	25.0	19.0	20.9	7.0	8.6
주사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임플란트 등)	0.0	0.0	1.1	1.3	0.6	0.9
자궁 내 피임장치(IUD)[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미레나)]	0.0	0.0	3.2	3.2	9.3	9.3
사후(응급)피임약(성관계 이후)	15.4	19.2	8.2	10.0	2.4	4.0
여성 반영구 피임술(난관절제술 및 난관결찰술)	0.0	0.0	1.3	1.3	3.5	3.5
월경주기	25.0	34.6	28.8	33.6	26.9	31.2
기타	0.0	0.0	0.3	0.3	0.1	0.1

주: 1)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하여 %를 산출함.
2) '피임 안 함'은 본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함.
3)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으로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4) 노인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성관계 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대다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30의 <표 4-79>를 발췌하였음.

[표 3] 가장 최근 및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파트너가 사용한 피임 방법(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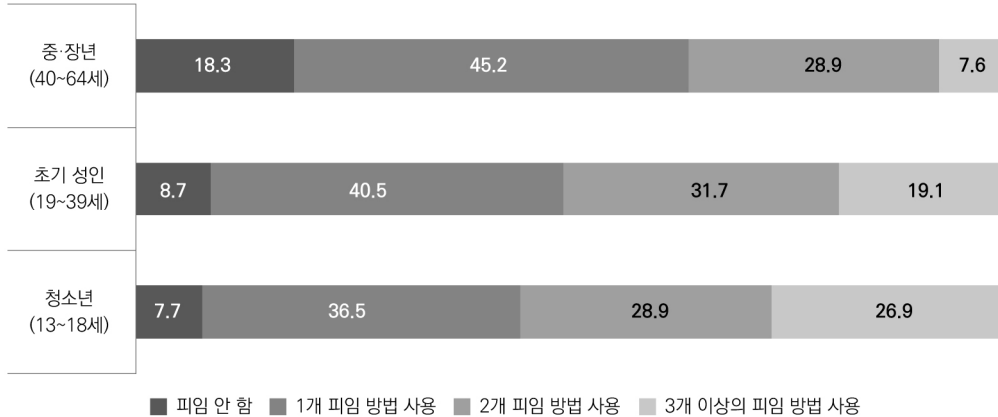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청소년 (13~18세)		초기 성인 (19~39세)		중장년 (40~64세)	
	가장 최근	지난 1년	가장 최근	지난 1년	가장 최근	지난 1년
피임 안 함	11.5	9.6	18.2	15.0	32.7	29.0
콘돔(남성용)	73.1	73.1	61.5	64.3	31.5	32.4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술 및 정관결찰술)	1.9	3.9	5.0	5.3	16.0	18.0
질외사정	42.3	50.0	34.2	42.2	26.5	33.3
기타	0.0	0.0	0.3	0.3	0.0	0.0

주: 1)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하여 %를 산출함.
2) '피임 안 함'은 파트너가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함.
3)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으로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4) 노인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성관계 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대다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31의 <표 4-80>을 발췌하였음.

[그림 2] 가장 최근 성관계 시 본인과 파트너가 사용한 피임 방법의 수

(단위: %)



주: 1)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하여 %를 산출함.
 2) '피임 안 함'은 본인과 파트너 모두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함.
 3)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으로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4) 노인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성관계 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대다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32의 <표 4-81>을 그림으로 수정하였음.

그리고 성관계 시 파트너가 사용한 피임 방법을 물어본 결과 성관계 시 파트너가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모든 생애주기에서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질외사정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중장년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와 달리 남성 반영구 피임술을 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위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의 성관계 시 사용한 피임 방법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생애주기에서 1개 피임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개 피임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다른 생애주기와 달리 본인도 파트너도 피임을 하지 않았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로 분석을 위한 사례 수가 확보되는 초기 성인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의 성관계에서 1개 피임 방법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경우 사용한 피임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기 성인에서는 57.8%가 가장 최근의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질외사정이 13.0%로 많았다. 중장녀에게서는 29.1%가 가장 최근의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술 및 정관결찰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많았다.

추가로 앞서 2개 이상의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고

[표 4] 가장 최근 성관계 시 1개 피임 방법을 사용한 초기 성인 및 중장년의 피임 방법

(단위: %)

구분	초기 성인 (19~39세)	중·장년 (40~64세)
폐미돔(여성용)	0.3	0.6
질내삽입기구(폐서리, 스펀지)	0.0	0.6
살정제(질좌제 형태의 약제)	0.0	0.6
경구피임약(성관계 이전)	7.5	2.8
주사피임제 및 피하이식 호르몬제(임플라논 등)	1.6	0.6
자궁 내 피임장치(IUD)[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미레나)]	3.3	9.7
사후(응급)피임약(성관계 이후)	1.6	0.8
여성 반영구 피임술(난관절제수술 및 난관결찰수술)	2.0	4.7
월경주기	5.5	9.1
콘돔(남성용)	57.8	29.1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수술 및 정관결찰수술)	7.5	24.4
질외사정	13.0	16.9

주: 1)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이면서 가장 최근 및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1개 피임 방법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분모로 하여 %를 산출함.

2) 기타는 사례 수가 적어 표로 제시하지 않음.

출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32의 <표 4-82>를 발췌하여 비율만 제시하였음.

응답한 비율도 청소년과 초기 성인에게서는 절반 정도, 중장년에게서는 3분의 1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조합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기 성인의 경우 총 49개, 중장년의 경우 총 64개의 조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조합을 살펴본 결과 초기 성인의 경우 콘돔을 기반으로 한 피임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콘돔을 기반으로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과 같은 피임 방법을 함께 사용하거나, 경구피임약이

나 사후피임약과 같은 현대적 피임 방법을 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중장년의 경우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을 병행하는 조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기 성인과 유사하게 콘돔을 기반으로 한 피임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기 성인과 달리 남성 및 여성 반영구 피임 시술을 하는 경우나 자궁 내 피임장치(IUD)와 다른 피임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표 5] 가장 최근 성관계 시 2개 이상의 피임 방법을 사용한 초기 성인 및 중장년의 피임 방법 조합(10순위)

(단위: %)

순위	초기 성인(19~39세)		중장년(40~64세)	
	조합	비율	조합	비율
1	월경주기법, 콘돔	14.0	월경주기법, 질외사정	27.1
2	월경주기법, 질외사정	12.7	월경주기법, 콘돔	16.1
3	월경주기법, 콘돔, 질외사정	10.6	경구피임약, 콘돔	6.9
4	경구피임약, 콘돔	9.3	월경주기법, 콘돔, 질외사정	5.8
5	콘돔, 질외사정	9.1	콘돔, 질외사정	4.8
6	경구피임약, 콘돔, 질외사정	5.4	월경주기법, 남성 반영구	3.1
7	경구피임약, 질외사정	3.9	자궁 내 피임장치, 콘돔	3.1
8	경구피임약, 월경주기법, 콘돔, 질외사정	3.6	사후피임약, 콘돔	2.4
9	사후피임약, 콘돔	2.9	자궁 내 피임장치, 질외사정	2.1
10	사후피임약, 콘돔, 질외사정	2.9	여성 반영구, 남성 반영구	1.7

출처: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다. 현대적 피임 실천

2022년과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활용한 피임 방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피임 방법⁴⁾ 실천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해 보고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피임 방법으로 제시된 선택지 중 월경주기, 질외사정, 기타를 제외한 방법을 현대적 피임 방법으로 정의하였으며, 현대적 피임 방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월경주기, 질외사정, 기타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측정하고 있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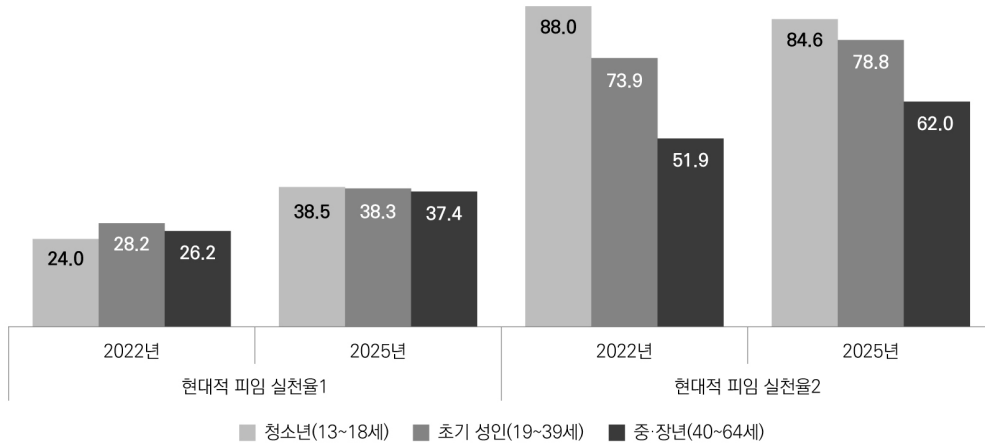
를 들어 [그림 3]에 제시된 현대적 피임 실천율^①은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 중 피임 방법으로 월경주기, 질외사정, 기타 피임 방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월경주기, 질외사정, 기타를 제외하고 현대적 피임 방법만 사용한 현대적 피임 실천율^①의 경우 2022년 대비 202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피임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4) WHO에서는 현대적 피임 방법이 여성 반영구 시술(female sterilization), 남성 반영구 시술(male sterilization), 자궁내장치(IUD), 피하이식제(implant), 주사피임제(injectable), 경구피임약(pill), 남성용 콘돔(male condom), 여성용 콘돔(female condom), 질내삽입기구(vaginal barrier methods), 수유무월경법(lactational amenorrhea method (LAM)), 응급(사후)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on), 기타 현대적 방법(and other modern methods)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https://www.who.int/data/g ho/indicator-metadatas-registry/imr-details/contraceptive-prevalence---any-modern-method-\(among-women-aged-15-49-years\)](https://www.who.int/data/g ho/indicator-metadatas-registry/imr-details/contraceptive-prevalence---any-modern-method-(among-women-aged-15-49-years))

[그림 3] 현대적 피임 실천율

(단위: %)



주: 1) 현대적 피임 실천율①은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월경주기, 질외사정 외 피임 방법만 사용한 사람의 수를 분자로 하여 %를 산출함.
 2) 현대적 피임 실천율②는 성적으로 활동적이고(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폐경, 임신, 지난 1년간 출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분모로, 지난 1년간 성관계 시 월경주기, 질외사정 외 피임 방법을 1개 이상 사용한 사람의 수를 분자로 하여 %를 산출함.
 3)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으로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출처: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전진아, 2023, 보건복지포럼 제321호, p. 35의 [그림 4]와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 134의 〈표 4-84〉 일부를 활용하여 제시하였음.

다. 다만 월경주기, 질외사정, 기타 피임 방법과 함께 현대적 피임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여러 피임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라.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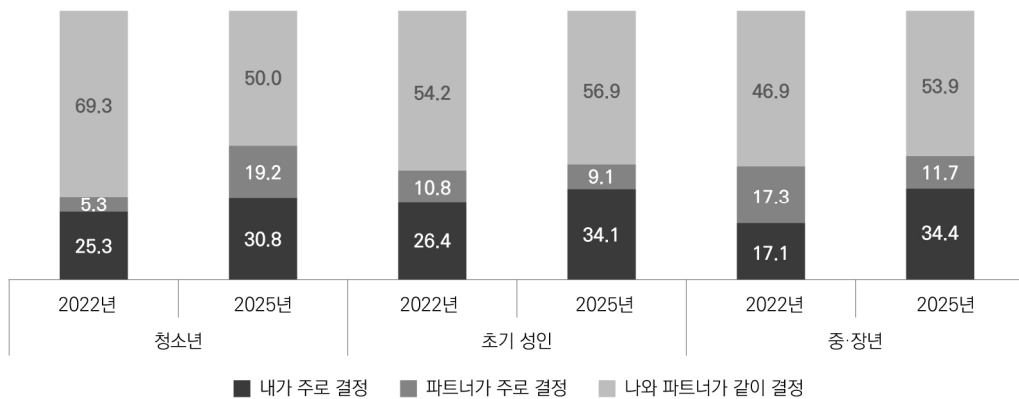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22년과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 파악한 피임 결정 주체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성관계 시 피임 여부, 피임 방법 등 피임과 관련된 결정

을 주로 누가 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 초기 성인, 중장년 모두에게서 본인과 파트너가 피임을 같이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만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주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가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성관계 시 원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콘돔과 경구 피임약에 한정하여 물어보았는데, 2022년 대비 2025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

[그림 4] 피임 결정 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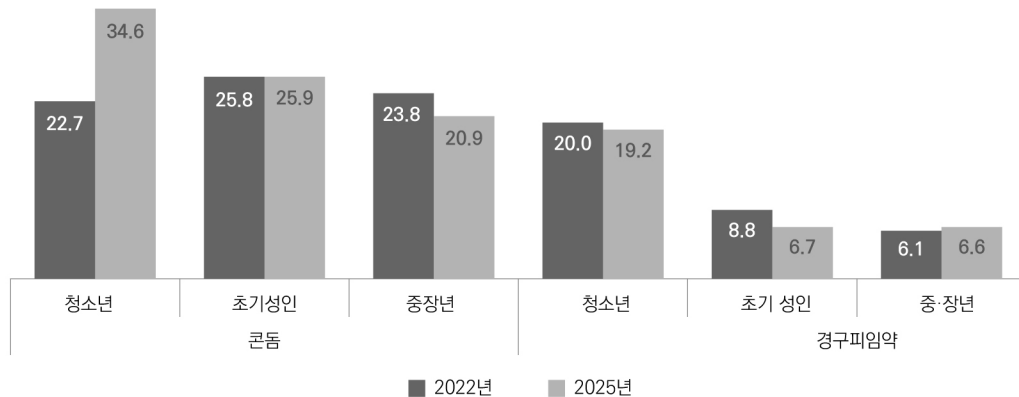


주: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으로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출처: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전진아, 2023, 보건복지포럼 제321호, p. 36의 [그림 5]와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p. 136의 <표 4-87> 일부를 활용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5] 원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단위: %)



주: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성관계 경험자가 52명으로 적어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함.

출처: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전진아, 2023, 보건복지포럼 제321호, p. 37의 [그림 6]과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박은자 외, 2025, 질병관리청, p. 136의 <표 4-88>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음.

년의 경우 콘돔 사용을 원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3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를 통해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2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2025년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현황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에 비해 항상 피임을 실천하고, 현대적 피임을 실천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을 제외한 현대적 피임 방법만을 사용한 비율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청소년과 초기 성인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피임에 대한 인식, 정보 접근성, 선택지 다양화 등의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은자 외, 2025). 다만 현대적 피임 실천율이 증가했음에도 질외사정과 월경주기법을 제외한 현대적 피임 실천율이 여전히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피임을 ‘항상’ 수행하는 것과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피임에 대한 결정을 본인과 파트너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응답도 꾸준히 절반 이상으로 나

타난다는 것과 자신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경향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임 실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 및 변화 속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른 피임 실천의 양상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경우 중장년이나 노인에 비해 피임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로 콘돔과 경구·사후 피임약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중장년 및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임 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피임 방법 중에서도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른 연령대와 달리 반영구 피임 시술이나 자궁내장치를 피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기 성인은 임신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임신 의도(임신을 원해서), 피임 도구 사용의 불편함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중 특히 연령 증가에 따라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은 피임을 주로 ‘임신 예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피임은 임신 예방뿐 아니라 성매개 감염 예방, 성 건강 관리 등 보다 포괄적인 성·생식 건강 차원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피임을 여전히 임신 예방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중장년과 노인층의 낮은 피임 실천율은 이 연령대에서 성매개 감염 등 성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과 예방 행동 부족과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피임을 임신 조절을 넘어선 성 건강 관리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정보 제공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1~2030)**.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박은자, 전진아, 김남순, 최승아, 송은솔, 박주현.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질병관리청.
- 박은자, 최지희, 전진아, 문선영, 최승아. (2025).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차)**. 질병관리청.
- 전진아. (2023).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321호, 28-40.
- Starrs, A. M., Ezeh, A. C., Barker, G., Basu, A., Bertrand, J. T., Blum, R., Coll-Seck, A. M., Grover, A., Laski, L., Roa, M., Sathar, Z. A., Say, L., Serour, G. I., Singh, S., Stenberg, K., Temmerman, M., Biddlecom, A., Popinchalk, A., Summers, C., & Ashford, L. S. (2018).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The Lancet*, 391(10140), 2642-2692.
- WHO 홈페이지 ([https://www.who.int/data/gho/indicator-metadata-registry/imr-details/contraceptive-prevalence---any-modern-method-\(among-women-aged-15-49-years\)](https://www.who.int/data/gho/indicator-metadata-registry/imr-details/contraceptive-prevalence---any-modern-method-(among-women-aged-15-49-year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Family Planning 2022: Meeting the changing needs for family planning contraceptive use by age and method*.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files/documents/2023/Feb/undesapd_2022_world-family-planning.pdf](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files/documents/2023/Feb/undesapd_2022_world-family-planning.pdf)

Contraceptive Practices in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National Survey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f Korean Women across the Life Course, 2022 and 2025

Jun, Jin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data from the 2025 National Survey on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f Korean Women across the Life Course, this article provides a multifaceted analysis of contraceptive practices among Korean women. Compared with 2022, rates of consistent contraceptive use and the use of modern contraceptive methods increased, as did women's autonomy in contraceptive decision-making. However, a gap remains between the frequency of contraceptive use and the adoption of effective contraceptive methods. The contraceptive methods used varied by life stage, with younger adults preferring modern methods and middle-aged adults relying on traditional methods or semi-permanent contraceptive procedures. The reasons for nonuse and the methods employed suggest a strong tendency to perceive contraception primarily as a means of preventing pregnancy. This study reveals the need for policies that promote a broader understanding of contraception as an integral component of comprehensiv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ncompassing pregnancy prevention,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promotion of sexual health.